# 마음, 그대의 주인이자 주재자

## ㉜ 무위진인

'무위진인(無位眞人)'은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참사람'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임제 선사(?~867)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임제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대중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적육단(赤肉團) 위에 한 무위진인(一無位眞人)이 있다. 그는 항상 그대들의 면전(面前)으로 출입하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직접 확인하라."(임제록 3단)

**시간 공간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인**
**'마음이 곧 부처' 아는 순간 깨달은 것**

'적육단'은 '붉은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육체를 가리킵니다. '무위(無位)'는 '일정한 위치나 맡고 있는 지위가 없다'는 뜻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맡은 바가 있다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직책이나 고집하는 바가 없으면 해탈한 사람입니다. '진인(眞人)'은 '참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법신·불성·본래면목 등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면문(面門)'은 얼굴을 가리킵니다.

이상은 글자 해석인데 그 뜻은 "너의 육체 속에 무애/자재한 참 사람(無位眞人;법신·불성·진리·부처)이 있다. 항상 그대의 얼굴로 들낙날락거리고 있는데, 아직 그 참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보라"는 뜻입니다.

'진인'이나 '무위진인'은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용어는 도가적이지만 뜻은 불교적 진리인 부처·진여·법성·불성·법신·마음·주인공·본래면목 등을 가리킵니다. 즉 깨달은, 무애자재한, 해탈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비록 표현은 인격화되어 있지만 어떤 인격체 보다는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처, 즉 그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진인(眞人=眞如法身, 불성)이 항상 그대의 면문(얼굴)으로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몸속에 주재자나 아트만 같은 것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 즉 그대의 주재자이자 육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안다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대는 깨달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칭찬해도 좋아하고 비판·충고하면 분노합니다. 마음은 분명 자기 것이지만 뜻대로 잘 통제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엄연히 그대의 주인이고 주재자입니다. 바로 <장자>에서 말하고 있고 임제 선사가 말하는 '무위진인'입니다.

임제 선사는 진여·법신·법성·불성·부처, 그리고 깨달은 자를 <장자>에 나오는 무위진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도가적 용어에 익숙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진여·법성·법신·불성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는 '무위진인'이라는 말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진인(眞人)'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진인은 생활이 풍성해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역경이 다가와도 싫어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기뻐 날뛰지 않았고, 죽음이 당도해도 거부하지 않았다. 유연히 왔다가 유연히 떠나갈 뿐이다." "진정한 진인은 잠을 자도 꿈이 없고 잠에서 깨어나도 근심이 없다."(<장자> 대종사편).

우리는 근심·걱정 등 번뇌 망상에 시달리다 보면 낮에는 물론 밤에 꿈속에서도 고역을 당합니다. 번뇌가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꿈은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꿈을 사실로 여겨서 좋은 꿈을 꾸면 좋아하고 나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은 꿈도 사실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실을 모두 허망한 것으로 보라는 말이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

진인이나 무위진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인(부처)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은 만년에 본격적으로 '참 사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참 사람'이 바로 '진인(眞人)' '무위진인'입니다. 진인은 '깨달은 자'이고 '부처'입니다.

진리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체득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위진인'이라야 합니다. 번뇌와 무상과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아직 중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무위진인이 아닙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 편안할 때도 번잡할 때도 순일 이루어야

## ㉜ 유도파 여인

당나라 때 위앙종의 창시자인 위산영우(771~853) 선사가 어느 날 상당(上堂)법문을 했다.

"사람마다 각자 모양 없는 참사람(眞人: 불성을 상징)이 있어서 항상 면전(面前)에 출입자재(出入自在)하는데, 지금 여기 모인 대중은 이를 보느냐?"

대중 가운데 한 청신녀(淸信女)가 이 법문을 듣고서, '사람마다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다는데, 나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고?' 하는 분심(憤心)이 일어 자나 깨나 의심하고 참구했다. 그녀는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시골 장터에서 인절미를 구워 팔며 살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더욱 더 깊이 화두 일념을 지어갔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간절하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공부한 결과, 하루는 그녀가 인절미를 굽는 도중에 홀연히 화두 관문(關門)이 타파되어 모양 없는 참사람을 깨달았다. 너무나 기뻐 인절미 소쿠리를 팽개쳐 버리고 위산 선사를 찾아가니, 선사가 벌써 간파(看破)하고 질문했다.

"어떤 것이 모양 없는 참사람이냐?"

"머리는 셋이요, 팔은 여섯 가진 큰 장사가(三頭六臂大力將) 한 주먹으로 태화산을 쳐부숨에(一拳擊破太和山) 천겹 만겹의 태화산이 두 동강이 나니(分破和山千萬重) 만 년이나 흐르는 물은 봄을 알지 못하더라(萬年流水不知春)."

보살이 이렇게 깨달은 경지를 이르자, 위산 선사는 "그대가 바로 알았느니라"하고 인가(印可)했다.

이 청신녀가 바로 유도파(兪道婆) 또는 유도파(有道婆)였다. 이름이라기보다는 별호가 더 유명해져 뒷날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도에 응답한 노파' 또는 '도가 있는 여인네' 정도일 것이다.

유도파는 임제종 양기파의 낭야계(瑯耶 啓)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선림에 전해져 온다.

<나호야록(羅湖野綠)>에는 다음과 같은 구도기가 보인다.

**인절미 굽는 도중 홀연히 화두 관문 타파**
**참선 공부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

시장에서 인절미 장사를 하던 유도파가 어느 날, 거지가 부르는 연화악(連華樂)을 듣게 되었다.

"유의(柳毅: 용왕의 딸을 구해준 후 결혼했다는 사람)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동정호에 왔느냐?"

유도파가 이 노래를 듣고 홀연히 느낀 바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껄껄 웃으며 인절미를 던져 버리니, 시장의 아이들이 앞다퉈 주어 갔다.

남편이 "당신 미쳤어?" 하고 화를 내는데,

그녀는 손뼉을 치며 "당신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오" 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유도파는 스님들을 만나면 으레 시험해 보았다.

하루는 한 스님이 문앞을 지나가는데 유도파가 갑자기 "아가야!" 하고 불러 세웠다.

그러자 그 스님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소?" 라고 대꾸했다.

이에 유도파가 몸을 돌려 노주(露柱: 건물의 기둥)에 절을 하니,

그 스님은 노파를 차서 넘어뜨리고 말했다.

"대단한 데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지…."

뒷날, 유도파가 또 다른 한 스님을 보고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왔소?"

"오조사(五祖寺)에서 왔습니다."

"오조사 노스님도 내 아이다."

"할머니는 누구의 아이오?"

"이 노파가 스님 묻는 말에 선 채로 오줌 싸겠소."

이렇듯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던 여인네가 화두 관문을 뚫어 일대사(一大事)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선 공부가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승속, 남녀, 어떠한 형상과도 무관한 것이 이 참선법이다. 고인들은 고요한 데서 공부를 익히는 것보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익히면 그 힘이 몇 배나 더 수승(殊勝)하다고 했다. 참선은 이로움과 쇠멸함과 헐뜯음과 예찬함과 칭송함과 나무람과 괴로움과 즐거움의 여덟 가지 경계(八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부로서, 편안하고 고요한 때만이 아니라 번잡한 환경속에서도 순일(純一)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김성우 기자

---

## 신행게시판

●**신심명 강좌=**반냐라마 사띠스쿨이 다보산 반냐라마에서 8월 29~31일 <신심명(信心銘)>을 주제로 제4기 SUTTA WORKSHOP을 개최한다. 29일 오후 3시 시작되는 이번 워크숍은 붓다팔라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신심명>을 지도한다. 동참금은 10만원. (055)331-2841

●**호두마을위빠사나 명상센터 9월 주말수행=**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명상센터는 9월에는 주말수행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5~7일, 13~15일, 19~21일, 26~28일 능혜 스님의 지도로 2박3일간 주말수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동참금은 6만원이다. (041)567-2842

●**보리수선원 9월 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이 제113차 수행을 9월 15~20일 개최한다. 수행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다. 제113차 집중 수행은 13~20일 열린다. 매월 둘째 넷째 금~일요일 진행되는 자율 주말 수행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산행을 겸한 직장인 수행 프로그램이다. (02)517-2841

●**신심명 설법=**우곡선원이 8월 28일 부산선원(051-740-6288) 정기법회에서부터 <신심명> 설법법회를 개최한다. 우곡 선사가 설법하는 <신심명>법회는 9월 2일부터 일산선원(031-975-3127)에서도 시작된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작,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8. 23(토) 오전 9시 ~ 8. 24(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Twin Media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